개인정보 무분별 제공… 장애인 외면 콜택시…

광주 인권옴부즈맨 사례집으로 본 공공기관 인권침해 보니

2년6개월간 157건 상담
전공노 홈페이지 차단 시정

광주시청 용역 청소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효과도

#1. 광주시는 지난 2014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본부 및 광주지부 홈페이지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광주시가 도박·유해사이트, 웹하드와 보안상 취약한 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 사례는 있었지만 정상 사이트를 차단한 사례는 처음으로, 전공노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활동을 제한한 것이다.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지난해 9월 "전공노 홈페이지를 특정해 차단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광주시장에게 홈페이지 접속 차단을 해제할 것을 권고했다. 광주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2.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지난 2014년 6월 "광주시나 자치구가 경찰에 개인정보를 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는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제공을 자제해줄 것을 자치구 등에 요구했다. 앞서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시 5개 자치구에 기초수급자 명단 제출과 관련된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발송했다. 도심에서 발견된 '대통령 비방 낙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자치구에 4500명이 넘는 기초수급자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이 같은 자료제출 요구를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고, 3개 자치구는 자체적인 논의 절차도 없이 2900여명의 자료를 제공했다.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이 최근 처음으로 펴낸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인권침해 결정례집'에 담긴 내용들로, 광주시와 자치구,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에서의 인권침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월 '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권옴부즈맨이 구성됐다.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지난 2013년 47건, 2014년 54건, 지난해 56건 등 2년6개월 동안 모두 157건을 상담했고, 이 가운데 32건의 신청사건을 조사했다.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9건의 사건에 대해 개선권고(6건), 의견표명(2건), 제도개선 의견표명(1건)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최근 이 사례들을 묶어 처음으로 결정례집을 펴냈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는 지난해 광산구 한 주민의 급수신청을 거부했다가 인권옴부즈맨으로부터 '급수신청 거부 취소 및 관련 규정 개정 권고'를 받았고,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휠체어 이용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체장애 3급인 보행장애인의 콜택시 이용을 거절했다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광산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이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단수조치를 내렸다가 인권옴부즈맨의 조사가 시작되자 단수조치를 해제했고, 복지관 이용 장애인에게 욕설을 한 복지관 직원은 인권침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광주시청 용역 청소노동자들이 인권옴부즈맨 조사 이후 직접고용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관계자는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광주시청과 사업소, 자치구, 대학 등에 배포해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062-613-2500. /김경인기자 kki@

대인 야시장 '별장' 열렸네

13일 오후 광주시 동구 대인예술야(夜)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까지 매달 둘째, 넷째 주 열린 대인예술야시장은 올해부터 매주 토요일 시민들을 찾아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경찰청, 보복·난폭운전 전담 수사팀 운영

난폭운전도 형사처벌 대상

지난해 7월3일 새벽 1시15분께 나주시 학산삼거리 교차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회사원 김모(43)씨는 신호 대기중 신호위반한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에 서자 10㎞가량 추격하며 6차례에 걸쳐 택시 앞을 가로막아 진행을 방해하고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을 했다. 광주 광산경찰은 김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이 같은 보복운전은 지난해 하반기(7월1일~12월31일) 광주지역에서만 32건이 적발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도 운전자의 40%는 보복운전의 피해를 경험했고, 14%는 보복운전을 한 경험이 있다고 조사됐다. 여기에 차로를 바꾸며 지그재그 운전을 하거나 무리한 앞지르기, 바짝 붙어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난폭운전도 크게 늘고 있다.

광주·전남 경찰청은 14일 이같은 보복·난폭운전 근절을 위해 일선 경찰서에 이를 전담 수사하는 교통범죄수사팀을 신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다.

특히 경찰청은 그동안 6만~7만원 정도의 단순 범칙금에 그쳤던 난폭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난폭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담겨 12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난폭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사람에게 벌점 40점을 부과해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항목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 발생 등 아홉 가지다. 해당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거나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저지르면 난폭운전으로 분류된다.

허양선 전남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지금까지는 '보복운전'만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고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따르게 된다"며 "이를 전담하는 교통범죄수사팀을 신설·운영, 엄정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설사환자 36% 노로바이러스 때문

광주시 보건환경연 조사
개인위생 관리 철저 당부

지난해 광주 설사환자 원인병원체의 36%는 노로 바이러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질병관리본부, 광주 9개 협력병원과 매주 설사환자 검체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1525건 가운데 840건(55.1%)에서 원인병원체가 검출됐다. 이 가운데 447건(53.2%)은 바이러스성 설사병원체, 393건(46.8%)은 세균성 설사병원체로 확인됐다. 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을 전후한 11~4월에, 세균은 여름인 6~8월에 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병원체 중에는 노로바이러스가 305건(3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살모넬라균 115건(13.7%), 병원성 대장균 88건(10.5%), 로타바이러스 88건(10.5%) 등 순이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최근 4년간 해마다 30%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또 2012년은 10월 중순, 2013년 11월, 2014년 12월 초, 지난해에는 12월 중순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유행이 조금씩 늦춰졌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온난화, 폭염, 폭설 등 기상 변수로 원인병원체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행병원체의 변이도 꾸준한 추세"라며 "감염 예방을 위해 비누를 이용해 30초간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의원 상고심 18일 선고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74)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18일로 잡혔다. 기소된 지 3년 4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오후 2시50분 박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로 변경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임기를 3개월여 남겨두고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게서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에게서 검찰 수사결과 발표 때 저축은행 실명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의원은 기소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였으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연합뉴스

전 대학교수 아파트서 목 매 숨진 채 발견

14일 오전 9시50분께 광주시 북구 본촌동 한 아파트에서 A(56)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아내(50)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아내는 "얼마 전부터 따로 지내고 있는 남편이 연락이 되지않아 가보니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아파트 거실에서는 죽음을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됐다. 1년 전 대학 교수직을 그만둔 A씨는 최근 알코올 중독, 우울증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영화와 현실 착각…수도검침원에 흉기 휘두른 20대

쌍나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20대 남성이 영화 '검사외전' 내용에 몰입한 나머지 수도검침원에게 흉기와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가 경찰서행.

○…14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권모(27)씨는 지난 9일 오후 광주시 동구 용산동 한 교회 안에서 수도검침원 A(54)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경찰 관계자는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아온 권씨가 영화 '검사외전'을 보고 자신을 영화 속에서 흉기에 찔리는 주인공(황정민 분)으로 착각한 나머지 이날 교회에 들어온 A씨를 침입자로 오인했다"며 "권씨를 조사한 뒤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곡성 전원주택 매매
〈전남 곡성 오곡면 압록리〉
광주에서 50분 거리
최저가 전원주택
섬진강, 압록역 3분 거리
(토 80평, 건 30평)
▣ 전세값으로 내집 마련
(보 5백만 , 월 30만) (융 2천만)
매가 4천200만
☆ 원룸 추천 ☆
① 북구 중흥동 원룸 상가 (전대 정문2분,코너) (모아 A.P.T 코너자리)
(1층상가, 1개,2개 분할가능) (4층 주택) (2~3층-원룸 6개, 투룸 2개)
보 4천만 월수익 480만 (융 1억5천만) → 매가 6억8천
② 전대 정문 상가 원룸 매매(1층상가2개-투룸12개,원룸6개)
(보4천5백,월720만) → 매가 7억8천
③ 용봉지구 원룸 총룸-20개(엘리베티어 있음) 월수익 800만 → 매가 11억
010-6670-9800

1층 상가 매매
〈광산구 월계동 , 첨단지구〉
첨단 부영1차 A.P.T.건너편
(광산 KT지사 부근)
※ 미용실,식당,프렌차이즈 추천
(저렴한가격 대비 높은 수익률)
(보 - 800만, 월 80만)
매가 1억5천만
☆ 소액 상가투자 물건☆
① 전남 곡성 전원주택 (토 80평 , 건30평) (광주에서 50분거리)
압록역 , 섬진강 부근 → 매가 4천5백만
②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 (45평) 올수리
(융5천) (보1천,월60만) → 매가 1억1천만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융5천) (보5백,월45만) → 매가 8천5백

8층 상가 매매
〈첨단지구, 북구 오룡동〉
삼성전자 정문 앞
교육시설단지, 공장단지
1층 (상가) 130평
2층~7층 (고급 오피스텔 룸)-56개
8층 (주택겸사무실)
(저렴한가격 대비 높은 수익률)
보 2억 - 월 3,000만
(융 , 25억)
매가 35억
010-7384-7800

(주) 대신경매 법률경매
(특수물건 추천)
1. 동구 계림동 (다가구 원룸) (토 90평 ,건 203평)
(1층~4층 총 룸 18개) 임대수익 , 투자 가치 적합
계림동 홈플러스 남측 근처,재개발지역 부근
감정가 6억3천 → 최저가 4억4천
2. 동구 학동 (근린시설) (토 114평 , 건 60평)
(1층-사무실 , 2층-주택)
학운동 주민센터 북서측위치 , 약 2m 진입로 있음
감정가 2억6천 → 최저가 1억8천6백
3. 북구 두암동 (근린주택) (토 44평,건118평)
북구 두암동 우체국 옆 , 2차선 도로 접
☆ 1층 점포 , 2층~4층 주택
감정가 3억 5천 → 최저가 2억 5천만
4. 서구 풍암동 (다가구 원룸) (토 74평,건131평)
(1층~3층 총룸 12개) 아파트 밀집지역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5억2천
5. 남구 방림동 (근린시설) (토 207평, 건 333평)
삼일 아파트 단지 내 , 주변 아파트단지 , 코너자리
감정가 9억8천 → 최저가 5억5천
수익성 상가 (근린주택,주택)
① 북구 중흥동 (토 46평, 건 50평)
(지하 - 창고 ,1층~2층 - 주택)
감정가 1억2천 → 최저가 1억2천
수익성 상가 (다가구 원룸)
① 서구 풍암동 (토 74평,건131평) 풍암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1층-룸 5개, 2층 - 룸 5개 , 3층 - 룸 2개)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5억2천
② 광산구 월계동 (토 86평,건 161평)
한국방송통신대 북서측 인근, 8m도로 접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1억8천7백
③ 서구 양동 (숙박시설) (토 174평,건 424평)
총 5층 , 10m도로 접 , 양동시장 부근
감정가 10억 → 최저가 7억6천
④ 서구 쌍촌동 (토 90평, 건 364평)
1층~5층 총룸 37개 ,운천역 3분거리
감정 12억 → 최저가 6억8천
⑤ 북구 중흥동 (토 81평,건 298평)
총 5층 , 중흥초등학교 북서측 인근 , 약8m 도로접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3억7천
☆직원 구함 ☆
경매 컨설팅 , 부동산 배우실분
가족처럼 함께 일하실분 모집 합니다.
010-6834-4800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010-6832-9700